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이기일 제1차관,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서울시 서대문구청 및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대문종합재가센터를 방문하여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서울시 서대문구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되어 가족돌봄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수행 지역 공모를 거쳐 16개 시·도의 51개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사회서비스의 양을 확대하고 질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5.31. 보도자료,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수립’ 참조]

정부는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을 확대하고 관련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과 (가칭)청년미래센터 설치 및 전담 인력(돌봄 코디네이터) 배치로 ▲밀착 사례관리, ▲자기돌봄비(연 200만 원), ▲정서회복 지원(자조모임, 멘토링 등) 등을 실시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23) 국비 186억 원 → (‘24 정부안) 국비 335억 원

**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 (‘24 정부안) 국비 21억 원(신규),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추진(‘26~)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서대문구청뿐만 아니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대문종합재가 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일상돌봄 서비스 수행지역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로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해 일상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족을 책임지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본인의 꿈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붙임> 1.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2.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개요
 3. 현장방문 개요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책임자	과장	권민정 (044-202-3220)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044-202-3224)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책임자	팀장	장영진 (044-202-2930)
		담당자	사무관	박진웅 (044-202-3702)



붙임 1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①중장년(40~64세)과 ②가족돌봄 청년(13~39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23.8.~)
- (서비스 유형)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심리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12·36·72시간 중 택 1)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 (서비스 가격)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36,000원, B형(月 12시간) 월 192,000원, C형(月 72시간) 월 1,272,000원이며,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 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5%
120% 이하	10%	20%
120~160%	20%	30%
160% 초과	100%	100%

- ('23년 규모) 공모를 통해 정한 16개 시·도(51개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차년도 단계적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가족 돌봄의 상황 속 청년 본인의 미래준비·자립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 및 자기돌봄 지원
- (사업기간) '24.~'25년 * 시범사업 운영(2년) 후 전국 확대 시행 목표
- (규모) 4개 시·도(4개소) *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공모·선정
- (전담인력) 개소당 6명(돌봄 코디네이터 6명), 총 24명
- (지원규모) 개소당 600명 총 2,400명
- ('24년 예산안) 21억 원(정부안) / 자치단체보조(서울 50%, 기타 70%)

□ **사업내용**

- (돌봄 코디네이터) 가족돌봄청년 선제 발굴을 위한 지역 내 유관 기관 핫라인 연락체계 구축, 가족돌봄청년 대상 밀착 사례관리
 - (발굴) 지역 내 학교·병원·청(소)년센터 등과 연락체계 구축, 가족돌봄청년 발견 시 돌봄 코디네이터로 연계
 - (사례관리) 기존 지원가능 제도 연계, 매 반기별 1:1 정기 개인면담 실시, 긴급(돌봄) 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
- (자조 모임) 가족돌봄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돌봄 경험 공유 및 정서 관리 등을 위해 자조 모임 등 정서 회복 프로그램 지원
- (자기돌봄비) 청년 본인의 정신·신체 건강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의료·문화여가·진로·교육비 등) 위해 연 200만 원 지원

□ 방문 목적

- 일상돌봄 서비스 및 가족돌봄청년 정책 관련 현장의견 청취, 사업 집행현황 점검 및 현장 관계자 격려 등
- 전국 최초 지자체 단위 가족돌봄청년 발굴·지원 추진⁽²²⁾ 및 현재 일상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시 서대문구의 서비스 제공 현장 방문

□ 방문 개요

- (일시) '23. 11. 29.(수), 10:00 ~ 11:30
- (장소) 서울시 서대문구청 및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대문종합재가센터*
* 일상돌봄 서비스 중 '재가방문 돌봄서비스' 제공에 참여 중
- (방문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회서비스사업과 권민정 과장, 청년정책팀 장영진 팀장 및 담당자 등

□ 세부 일정

시간	장소	내용
10:00~10:40(40')	서대문구청	- 사업현황 보고 및 의견 청취 - 현장 의견 청취 등
10:40~10:50(10')	이 동	서대문구청 → 서대문종합재가센터
10:50~11:25(35')	서대문 종합재가센터	-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 청취 - 시설 라운딩
11:25~11:30(5')	-	- 종사자 격려 및 마무리